

기타무라 도코쿠와 에머슨의 자연관 비교연구

許培寬¹⁾

< 要 旨 >

도코쿠가 에머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는 작품은 『자연론』이며, 에머슨은 『자연론』에서 「자연은 그 자신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일정하고 불변하다」라고 주장한다. 즉, 신과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가 그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도코쿠는 평론 『에머슨』에서 그의 자연관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코쿠의 자연에 대한 해석이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멸시되어지는 자연관이 아닌, 우주와 인간의 매개체로서의 자연관이 나타나 있다. 또한 도코쿠 에머슨이 동양과 서양의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결합시켰다고 주장한다.

연구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도코쿠의 이러한 관점이며, 이것이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의 도코쿠와 에머슨의 자연관 분석과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자연론, 대령(Over-Soul), 합일(Unity), 초월주의, 영(soul), 자기신뢰(Self-Reliance)

1. 머리말

도코쿠의 문학세계는 에머슨의 자연론(대령-자연-인간의 상관관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자연론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 교감이 가능하다고 하는 관점을 「대령(Over-Soul)」과의 합일(Unity)이라는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진·선·미를 직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과 인간의 공동체적 논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초월주의자 에머슨의 이상적인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한 에머슨의 사상이 동양의 범신론적 영향(특히 힌두이즘)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에머슨의 자연론과 관련되어진 일련의 작품들과 도코쿠의 작품을 비교하여, 에머슨의 자연관이 도코쿠에게 어떻게 수용·발전되어 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코쿠와 에머슨의 자연관

2-1. 자연관의 동일성과 상이성

앞서 언급한 대령-자연-인간에 관련된 에머슨의 자연에 관련된 사상계는 도코쿠의 평론 「人生に相渉るとは何の謂ぞ」(메이지26년 「文學界」 제2호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

吾人をして空虚なる英雄を気取りて、力として自然の前に、大言壯語せしむるものは我が言ふ活路にあらず、吾人は吾人の靈魂をして、肉として吾人の失ひたる自由を、他の大自在の靈世界に向つて縦に握らしむる事

1) 東義大, 日本近代文学

を得るなり。自然は暴虐を専一とする兵馬の英雄の如きにあらず、一方に於て風雨雷電を驅つて吾人を困らしむると同時に、他方に於ては、美妙なる絶對的のものをあらはして吾人を樂しましむるなり。風に對しては戸を造り、雨に對しては屋根を葺き、雷に對しては避雷柱を造る、かくして人間は出來得る丈は物質的の權を以て自然の力に當るべしと雖、かくするは限ある權をもて限なき力を撃つる業にして、到底限ある權を投げやりて、自然といふものの懷裡に躍り入るの妙なるには如かざるなり。2)

나로 하여금 공허한 영웅으로 자칭하고, 힘으로서 자연의 앞에서, 호언장담하는 것은 나의 갈 길이 아니다. 나는 나의 영혼으로 인해, 육으로서 잃은 자유를, 다른 대자재의 영세계를 향하여 원하는 만큼 만끽할 수 있다. 자연은 폭행을 일삼는 병마의 영웅과 같지 않다. 한편으로는 풍우 퇴진을 일으켜 나를 괴롭힘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미묘한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어 나를 즐겁게 한다. 바람에 대비하여 집을 짓고, 비에 대비하여 지붕을 잇고, 벽력에 대비하여 피뢰침을 세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가능한 만큼은 물질적 권력을 가지고 자연의 힘에 대항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유한한 권력을 가지고 한없는 힘과 싸우는 것으로서, 도저히 한없는 권력을 버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가슴 속으로 뛰어드는 묘함과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인용자역)

여기에 나타난 도쿄쿠의 자연관이 에머슨의 자연관과 일치되는 부분은 에머슨의 다음 문장에 나타나 있다. 예를들면 에머슨은, 「자연은 그 자신의 법칙에 위배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불변하다」³⁾라고 말하며, 자연의 다양성을 통한 내면의 불변성을 강조한 부분이 그러하다. 에머슨은 『자연론』에서

자연계의 사실은, 각각, 어떤 정신적 사실의 상징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개별의 상은 어떤 정신적 상태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그 정신적 상태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으로서, 자연계의 상을 보는 것으로서 확인되어진다.(중략) 정신계의 법칙은, 거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이 물질계의 법칙과 일치하고 있다.(중략) 자연은 항상,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은 절대를 암시하고 있다. 자연은 영원히 존재하는 결과이다. 자연은 우리들의 배후에 있는 태양을 항상 가리키고 있는 큰 그림자이다.⁴⁾

라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에머슨은 이성의 눈으로서 물질계를 응시하면 유한 세계는 투명해져서, 「정신계의 법칙(=대령)」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며, 자연은 우리들의 배후에 있는 태양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에머슨이 말하는 이성의 눈으로 응시한다고 하는 것은 초논리적인 신비적 직관을 말한다. 그리고, 그 직관이 이루어졌을 때, 에머슨은 자기신뢰의 영역을 넘어서, 도취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그는 모든 것을 통일하는 「대령」에 합일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도쿄쿠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

2) 勝本清一郎編(1955) 『透谷全集 第二卷』, 岩波書店, pp.120-121.

3) Nature is always consistent, though she feigns to contravene her own laws. She keeps her laws, and seems to transcend them (Brooks Atkinson, ed. The Selected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New York: Modern Library, 1950], 370).

4) Every natural fact is a symbol of some spiritual fact. Every appearance in nature corresponds to some state of the mind, and that state of the mind can only be described by presenting that natural appearance as its picture.... It always speaks of Spirit. It suggests the absolute. It is a great shadow pointing always to the sun behind us.(Atkinson,14-32).

연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 에머슨』의 문장을 살펴보자.

彼の自然教の脊髄ともなるべきは、此「自然」と此「心」との調和にあり。此自然は心の仇にあらずして、心の僕なり。自然は人の爲の用にして、人は自然の主人なり。⁵⁾

그의 자연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연」과 이 「마음」과의 조화에 있다. 이 자연은 마음의 적이 아니라 마음의 종인 것이다. 자연은 인간을 위하여 있고,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다.(인용지역)

여기에서 도쿄쿠가 말하는 「自然教」라고 하는 것은, 「大靈(Over-Soul)」이 자연의 속에서 스미어 있다고 하는 에머슨의 사상을 번역요약한 것으로서, 도쿄쿠는 당시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에머슨의 주요 사상(「大靈」)을 일본의 전통적 사상에 맞추어서 번역함으로써 자신의 자연에 대한 근본인식을 나타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에머슨이 자연과 인간의 영의 동일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면, 도쿄쿠의 경우는 인간의 영, 즉 마음(心)의 부분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의 도쿄쿠가 살았던 메이지(明治)시대의 일본인들에게는 자연과 인간의 동일성만의 주장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애써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는 당시의 봉건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던 일본 민중들을 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이 장에서 필자는 도쿄쿠가 에머슨의 자연론을 수용하여 어떻게 재구축하려고 했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쿄쿠에 있어서의 자연인식은, 일정한 범칙 위에 있으며, 또한 거기에 지배되어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일정의 범칙을 도쿄쿠는 「造化の最奥」, 「造化の靈」이라고 부르고 있다. 구체적인 실례를 「万物の声と詩人」(메이지26년 「評論」 제14호발표)에서 살펴보자.

造化の最奥! 造化の靈　そこに大平等の理あるなり。そこに天地至妙の調和あるなり。人間はいかほど卑しく拙なくありとも、天地至妙の調和は、之によりて毀損せらるることなきなり。あはれ、この至妙の調和より、萬物皆な或一種の聲を放ちつつあるにあらずや。⁶⁾

자연의 깊은 곳! 자연의 영! 거기에 대평등의 이치가 있다. 거기에 천지간의 묘한 조화가 있다. 인간이 아무리 비속하고 졸렬하다 할지라도, 천지간의 묘한 조화는 그것에 의해 훼손되어 지지 않는다. 아아, 이 조화에 의해서 만물은 모두 어떤 일종의 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인용지역)

과학적 자연관으로부터 본다면,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 확실히 부조화의 부분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조화를 포함한 형태로 「天地至妙の調和」가 작용하고 있다고 도쿄쿠는 믿고 있었다. 「造化の最奥」, 「造化の靈」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안쪽에 숨

5) 勝本清一郎編(1955) 『透谷全集 第三卷』, 岩波書店, p.108.

6) 勝本清一郎編(1955) 『透谷全集 第二卷』, 岩波書店, p.313.

겨진 영이라고 하는 의미인 이상, 「大靈」과 자연의 근원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에머슨의 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의 조화의 사상은 에머슨의 합일론(Unity)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自然論』에서

나는 하나의 투명(透明)한 안구(眼球)가 된다. 나는 무(無)이다. 나는 모든 것을 통찰(洞察)할 수 있다. 나의 내부를 보편자(普遍者)의 흐름이 맴돈다. 나는 지금 신의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다.⁷⁾

라고 쓰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보편자(普遍者)의 흐름」은 「대령」의 다른 표현이며, 이 서술에 의하면, 그는 「대령」과 합일을 이루었다는 확신 위에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소리를 들은 결과를 기술한 것이 된다. 에머슨 자신은 의식의 창조주로서 자연을 새롭게 응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다면은 자연은 자신의 의식의 소산인 것이다. 여기에 에머슨 특유의 자연과 인간의 공생공동(共生共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식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신중심의 기독교체제에 반하여 인간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연을 인간정신의 상징이라고 보고, 관념적인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과 자연의 질서체계를 만든 것이지만, 이 부분이 또한 그의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에머슨은 무한을 지향하는 이상세계와 유한에 머무르는 현실세계의 공존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두 세계는 타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실의 물질에 대한 정신의 상징을 중시하고, 그에 의해 구축되어진 세계로부터 현실세계를 가상으로 인식하고 배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세계를 가상이라고 보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 모순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에머슨은 이 두 세계의 대립의 상태에서 정신을 우월시하는 입장에서 눈을 전개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러한 사상은 그의 신앙과는 부조화한,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의 일원성과는 분리되는 형태의 것이 되고 만다. 에머슨은 『수필집·상』의 「원환론(円環論)」에서

자연에 끝은 없다. 모든 것의 끝은 시작이다. 낮 동안에 이미 다음날 새벽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만물이 가지고 있는 이 부단의 운동과 진보는, 혹시, 영혼에 있어서의 부동이라든가 안정이라고 하는 원리에 비교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원환(円環)이 영원히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영원의 생산자는 부동하다. 그 중심의 생명은 어느 정도까지 상상 우위에 있고, 지식과 사상보다도 상위에 있어, 모든 원환(円環)을 포함하고 있다.⁸⁾

라고, 자신이 주장하는 일원론을 강조하고 있다. 에머슨의 일원론에 의하면, 자연과 인간은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에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필연의 결과이다. 그가 설명하는 보상(Compensation)의 정신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질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화와 질서는 신의 섭리와 같은 뜻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원론을 그가 배제한 현실세계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단지 정신적인 차별을 배제하려는 정도의 효과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7) Emerson wrote, "I become a transparent eyeball ; I am nothing ; I see all ; the currents of the Universal Being circulate through me ; I am part or parcel of God." (Ibid).

8) Emerson wrote, "There is no end in nature, but every end is a beginning ; that is always another dawn risen on mind-noon, and under every deep a lower deep opens." (Works, vol. II. Essays, First Series, 10. Circles).

그러나 에머슨은, 이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가지는〉 자연과 인간의 창조주인 「대령」을 신뢰하는 곳에, 사회에 대한 자신의 논리의 근거를 두었으며, 그것은 「자기신뢰(Self-Reliance)」라는 용어로서 주장되었다. 에머슨은 「자기신뢰」의 강도와 정도에 따라, 생활, 종교, 교육, 교제, 재산 등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의지박약의 결과로서는 불평불만이 생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당시, 「자기신뢰」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많았으나, 일본에 있어서 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가가 기타무라 도코쿠이다.

……『爾自らを信ぜよ。』……これが即ち、爾が新しき国にありて、古き国の古き善ととりて、古き悪を棄て、以て新理想の新共和国を建設するを得る所以、斯く彼は教えたり。⁹⁾

……『너 자신을 믿으라.』…… 이것이 곧 너가 새로운 나라에 있어, 낡은 나라의 낡은 선을 버리고, 낡은 악을 버리고, 그로서 신이상의 신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가르쳤다.(인용자역)

즉, 에머슨과 도코쿠에게 있어서 자기신뢰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에머슨의 경우, 일신교적 신의 구제에 의존하지 않는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도코쿠는 이러한 자기신뢰를, 봉건제도하에 있는 민중들의 자아의 각성에 연결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머슨이 자기신뢰를 주장할 당시의 미국의 기독교 사회는 일신적 신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위치에 두고 신뢰한다고 하는 자기신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도코쿠는 이러한 에머슨의 자기신뢰의 사상을 받아들여, 메이지 시대의 전제정치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각성이라는 형태로 계승 발전시키려 하였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코쿠가 에머슨의 사상을 단지 번역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전통문화 내지는 정신을 십분 이해하고, 에머슨의 초월주의 사상을 매개로 하여 근대사회 속에서 재생시키려고 노력한 점이다.

2-3. 성경과 자연관의 관계

洗禮を施すは悪きことにあらず、然れども其を以て基督の弟子となるに缺くべからざる大禮となすは非なり、心を以て基督に冥交する時、彼は無上の榮ある基督の弟子なり、洗禮を施さざる悪しきならず、然れども洗禮を施さざるを以て直ちに基督の弟子となり了したりと思ふは大小計なり、凡て心の基督に通じたる時、即ち心が基督の水に浴したる時、再言せばパウロの所謂火の洗禮に遭ひたる時こそ、眞に基督の弟子となりたるなれ、然り、心の奥の秘宮開かれて、聖靈の猛火其中に突進したる瞬時に於てこそ。¹⁰⁾

세례를 행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의 대례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교감할 때 그는 무상의 영예로운 예수의 제자이다. 세례를 행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례를 행하은 것으로서 곧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것이다. 모름지기 마음의 예수와 만났을 때 즉 마음이 예수의 물로서 씻겨졌을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소위 불의 세례를 만났을 때야말로 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 마음 깊은 곳의 비궁이 열려서 성령의 맹화가 그 속으로 들

9) 勝本清一郎編(1955) 『透谷全集 第三卷』, 岩波書店, p.122.

10) 勝本清一郎編(1955) 『透谷全集 第二卷』, 岩波書店, p.11.

진할 때야말로.(인용지역)

이 문장은 도쿄쿠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 나타나 있는 문장으로서, 평론(「各人心宮内の秘宮」)의 일부분이다. 도쿄쿠의 성서해석의 독자성이 문장에 흐르고 있으며, 그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心を以て基督に冥交する時」의 일구절일 것이다. 이 구절에 나타난 상태를 전제로한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의 정통적 신학에 의거한 성서해석·설교에 매개되어 지지 않는 인간의 정신(心)이 곧 「基督に冥交」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에머슨의 교회비판의 밑바탕이 된 「신」의 관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되어지기 힘들 것이다. 에머슨의 일기에 쓰여진 바와 같이 「평범한 여러 명의 사람이 광대무변한 신과 관계를 가지고 일체가 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의 「신」은 문자 그대로 「광대무변」한 실체로서, 교회의 신학에 의거해서 설교를 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개인에 대하여 성스러운 교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앞서 언급한 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종교에는 반드시 숭고함이 동반되는 것이 아닐까. 예배당으로 내려가면, 평범한 수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음식을 먹기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오락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에 이끌려 오는 것이다. 광대무변한 「신」과 관계를 가지고, 일체가 되기 위해 거기에 오는 것이다.¹¹⁾

여기에는 아직 막연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에머슨 독자의 「신」의 관념이 엿보이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광대무변한 신」과 「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예배당」에 있어서의 예배(성찬식)를 매개로 하고 있는 이상, 그 「신」의 관념이 신교의 교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문맥으로 파악해 볼 때, 의식이 강조되어지지 않고,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단지 신과 일체화되는 장소로서 제공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즉, 「예배당」은 신성한 의례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단지 집회장으로서의 2차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의례를 통하지 않고 「광대무변한 신」과 일체를 이룰 수 있다는 신학이 에머슨에게 싹트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에머슨에 있어서, 「신」은 문자 그대로 「광대무변」한 존재이며 의식을 통하지 않고도 보편화되어질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은 유일한 존재이기 보다는, 오히려 〈신성(神性)〉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만한, 즉 만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보편적 신〉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머슨은 이 보편적 신과 언젠가는 자기자신이 교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다음의 일기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언젠가는 개인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영혼은 끊임없이 「보편적」이 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유기체의 최후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활기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¹²⁾

11) Is there not the sublime always in religion? I go down to the vestry & I find a few plain men & women there come together not to eat or drink or get money or mirth but drawn by a great thought— come thither to conceive and form a connexion with an infinite person. I thought it was sublime & not mean as other suppose. (Journals, February 10, 1830).

이 시기의 에머슨은, 〈보편적 신〉이라고 하는 관념의 펼연성으로부터, 마음속에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서 정신과 물질은 서로 교감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누구라도 「신」의 진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직관의 권위를 인정한 에머슨은, 성서를 신의 최후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가 지켜온 전통적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된다.

「신」과 교감할 수 있는 가능성, 나아가서 더욱 과격한 경우에는, 인간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서, 인간 그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낭만적 미국사회라는 배경이 있었지만, 사상 그 자체는 기독교에서 볼 때 이단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그의 일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의 교단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에머슨의 사상은,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그는 마음속으로 직접 들은 신의 소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관념은 도쿄쿠에게서도 일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心)이 「冥交」(Inspiration)한다고 도쿄쿠가 말할 때, 그의 관념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정통적 신학에 의거한 그리스도가 아닌, 초월적인 내재신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神」을 자기자신의 마음(心)에 깃들어 있는 신성(영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관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에머슨의 「大靈(Over-Soul)」론에 의거한 일종의 보편적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神」(靈性)이 깃들어 있는 이 마음(心)은 「神」의 광대무변한 실재와 합일(Unity)하는 것이었다.

2-4. 「一(Oneness)」와 합일(Unity)론

도쿄쿠문학의 난해성은 그의 종교사상의 특이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합일론에 의거한 에머슨의 「大靈(Over-Soul)」의 관념은 기독교적 정통교리와 동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도쿄쿠는 에머슨의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아 그 위에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心は世の中にある、而して心は世を包めり、心は人の中に存し、而して心は人を包めり。もし外形の生命を把り來つて觀ずれば、地球廣しと雖、五尺の体軀大なりと雖、何すれぞ沙翁をして「天と地との間をはひまはる我は果していかなるものぞ」と大喝せしめむ。唯だ夫れこの心の世界斯くの如く廣く、斯くの如く大に、森羅萬象を包みて餘すことなく、而してこの廣大なる心が來り臨みて人間の中にある時に、渺渺たる人間眼を以て説明し得るべからざるものを世に存在せしむるなり。¹³⁾

마음은 세상 속에 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을 감싸고 있다. 마음의 인간의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인간을 감싸고 있다. 혹여 외형의 생명을 가져와 살펴보면, 지구가 넓다고 하지만, 다섯 척의 몸이 크다고 하지만, 어떻게 석가로 하여금 「하늘과 땅 사이를 기어다니는 나는 대체 무

12) I believe that I shall some time cease to be an individual, that the eternal tendency of the soul is to become Universal to animate the last extremities of organization. (Ibid., August 21, 1837).

13) 앞의 책, p.8.

슨 물건인가」하고 외치게 하였겠는가. 단지 이 마음의 세계가 이와 같이 넓고, 이와 같이 커서, 삼라만상을 싸고도 남으며, 따라서 이 광대한 마음이 인간의 안에 있을 때, 미미한 인간의 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인용자역)

여기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의 마음(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첫 문장의 「心は人の中に存し」와 「心は人を包めり」의 마음(心)이 그것이다. 전자의 「心は人の中に存し」에 있어서의 마음은, 말하자면 인간의 육(肉)을 지배하는 감각기관을 통괄하는 마음이라고 본다면, 「心は人を包めり」에 있어서의 마음은 「내부의 자아」, 즉 「大靈(Over-Soul)」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영성, 다시말하면 우주·자연을 싸고 있는 영에 연결되어진 마음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이원론이 이 작품 「各人心宮内の秘宮」에 있어서의 「第一の宮」「第二の宮」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도쿄쿠도 이 양자의 결합, 아니 본디부터 하나임을 믿고 있는 부분이다.

彼は「一」の思想の上に立てるものにして、此點に於て他の多くの萬有思想と全く其の軌を異にせり。彼は生命の中心を心靈とし、萬物の中心を同じく萬物の心靈とせり、而して是等の一切のものゝの元素、一切のものゝの原因にして、すべての關係を離れたるもの、凡ての雙對を離れたるもの、即ち「全」なるもの、之を以て神とせり。この「全」は即ち彼の「一」にして、此の「一」は凡てのものゝの原因にして、又結果たり、部分にして又全體なり、此の「一」に於て、凡ての法の源あり、「心」と「物」との相結託するは、即ち此の「一」に於てなり、此の「一」に於て彼は「自然」と「心靈」の區別を沒せり、此の「一」よりして、凡ての精神的法は流れ出るものなることを認めたり。此の「一」は即ち彼の神なり。¹⁴⁾

그는 「一」의 사상의 위에 서 있는 것으로서, 이 점에 있어서 다른 많은 만유사상과 그 궤적을 달리한다. 그는 생명의 중심을 심령이라 하고, 만물의 중심을 또한 만물의 심령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들 일체의 것들의 원소, 일체 만물의 원인으로서는, 모든 관계를 떠나 있는 것, 모든 상대성을 떠난 것, 즉 「전체」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신으로 삼았다. 이 「전체」는 곧 그의 「一」로서, 이 「一」은 모든 것의 원인이며 결과이고, 부분이며 전체이다. 이 「一」에 모든 범의 근원이 있다. 「마음」과 「물체」가 서로 결합하는 것은, 즉 이 「一」에 의해서이다. 이 「一」에 의해서 그는 「자연」과 「심령」의 구별을 없앴다. 이 「一」에 의해서 모든 정신적 범은 흘러나오는 것을 인정했다. 이 「一」은 즉 그의 신이다. (인용자역)

여기에서의 에머슨에 관한 도쿄쿠의 기술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만물의 근본적 실재를 「一」(「神」에 해당)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머슨에게 있어서 이 「一」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어떠한 것도 거부하지 않고 포용하는 「一」로서, 도쿄쿠는 이에 공감하고 있다. 신, 인간, 자연, 이것들 모두는 「一」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동일하며, 신, 인간, 자연은 조화되어 있으며, 또한 외부와 내부에 있어서의 조화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근원적인 「一」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의식은 소멸되지 않고 보편적 의식과 연결되어 진다.

도쿄쿠는 에머슨의 신비주의적인 범신론적 우주관이 당시의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의 우주관으로부터 일탈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에머슨의 언설이 가진 인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기의 내부의 「영(靈)」의 실체를 각성하는 순간, 인간은 지상의 속박에

14) 勝本清一郎編(1955) 『透谷全集 第三卷』, 岩波書店, pp.106-107.

의한 비소성을 벗어나 천상의 유구·무한으로 비상·귀속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대령(大靈)」과의 「합일(合一)」을 추구한 것이며, 그 배경에는 힌두이즘의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사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상응하는 에머슨의 사상과 그에 대한 도쿄쿠의 해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겨울의 나경(裸景)에 섰을 때, 신선하고 아름다운 대기에 씻겨서, 나는 무한의 하늘을 우러러보는 듯이, 모든 비속한 자책(에고이즘)을 해탈(解脫)하는 느낌이 든다. 나는 투명한 하나의 안구로서 서 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본다. 우주적 존재자는 나를 통하여 유동하는 듯하고, 나는 신의 일부분, 일분자임을 인정한다¹⁵⁾

앞의 번역은 「연구 에머슨」의 일부분이다. 透谷가 인용한 에머슨의 『자연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Standing on the bare ground -my head bathed by the blithe air, and uplifted into infinite space- all mean egotism vanishes. I become a transparent eye-ball; I am nothing; I see all; the currents of the Universal Being circulate through me; I am part or parcel of God (Atkinson,6).

이 부분은 에머슨의 눈조가 최고조에 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도쿄쿠가 원문의 번역에 충실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고 하는 점이다. 에머슨의 언설에 있어서의 「우주적 존재자」(大靈)과 「나」(我)라고 하는 개인의 상관관계는 종교적 영역의 문제를 안고 있다. 종교적 교양에 의하여 「우주적 존재자는 나를 통하여 유동하는 듯하고, 나는 신의 일부분, 일분자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적어도 도쿄쿠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때에, 「나는 투명한 하나의 안구가 되어」, 자기도 또한 신에 의하여 창조된 자연(만물)중의 하나임을 실감한다. 이리하여 신의 보상에 의하여 「모든 비소(卑小)한 자책을 해탈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한 부분은, 에머슨의 원문에 있어서의 「비속한 에고이즘은 사라져 버린다」에 해당되며, 이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육체에 속하는 자아(「외부적 자아」)를 정신에 분유(分有)·부여(賦與)되어진 「우주적 존재」(내부의 자아)가 압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쿄쿠의 이러한 해석은, 자연의 만상 앞에 선, 그 중의 일미물인 나의 괴리·고립을 천공을 바라보는 초월자의 시선에 의해서 포착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심기일전」해서 나를 「우주적 존재자」에 귀속시킨 순간, 그 괴리와 고립은 사라지고, 「초월적 자기」의 시선이 실재의 직관에 의해 떨리면서, 경건한 기도를 올리게 된다고 하는 프룻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룻에 에머슨의 신비주의적인 범신론적 우주관과 초월주의적 자아의 사상이 짙게 투영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신비주의를 시적감성의 근원에 근거한 것으로서 생각하고, 시적감성을 통하여 신비주의적 우주관 위에 선 세계를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3. 맺음말

15) 앞의 책, p.43.

도쿄쿠와 에머슨의 자연관이 내포한 난해성은, 그들의 사상이 어느 특정한 종교나 종파에 귀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일부분은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머슨의 반기독교적(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사상은 도쿄쿠에게 받아들여져, 대령과 인간의 교감의 관념은, 인스피레이션을 통한 「내부생명론」으로 귀결되어졌다.

또한 그들이 지향한 관념은 에머슨에게 있어서, 대령과 인간의 영의 합일(Unity)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었으며, 도쿄쿠는 이를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의 영(에머슨에 있어서의 soul)을 강조한 「내부생명론」으로 수용 발전시켰다.

【參考文獻】

- 色川大吉(1994) 『北村透谷 -彼岸への夢-』, 丸善書房
尾形敏顔(1991) 『ウォルター・エマソン』, あぼろん社
桶谷秀昭(1984) 『近代の奈落』, 国文社
桶谷秀昭(1994) 『透谷と近代日本』, 翰林書房
小沢勝美(1982) 『北村透谷 -原象과 水脈-』, 勁草書房
小田切秀雄(1979) 『北村透谷論』, 八木書店
勝本清一郎(1990) 『透谷全集』, 岩波書店
北川 透(1976) 『内部生命の要塞・北村透谷 試論Ⅱ』, 冬樹社
北川 透(1977) 『<蝶>の行方・北村透谷 試論Ⅲ』, 冬樹社
北川 透(1979) 『<幻境への旅>・北村透谷 試論Ⅰ』, 冬樹社
平岡敏夫(1982) 『北村透谷研究』, 有精堂
平岡敏夫(1982) 『続 北村透谷研究』, 有精堂
平岡敏夫(1982) 『北村透谷研究 第三』, 有精堂
平岡敏夫(1993) 『北村透谷研究 第四』, 有精堂
笹淵友一(1991) 『文学界とその時代』, 明治書院
佐藤善也(1994) 『北村透谷 -その創造的 営為-』, 翰林書房
津田洋行(1979) 『透谷像構想序説 -<伝統>と<自然>-』, 笠間書院
永畑道子(1994) 『双蝶・透谷の自殺』, 籐原書店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1983) 『北村透谷』, 有精堂
橋詰静子(1994) 『透谷詩考』, 国文社
森山重雄(1986) 『北村透谷 -エロスの水脈-』, 日本図書センター
山田博光(1990) 『北村透谷と国木田独歩 -比較文学的研究-』, 近代文芸社

The comparative Study of Toukoku Kitamura and Emerson on Their Thoughts of Nature

Huh, Bae-Kwan

ABSTRACT

Toukoku is most influenced by Emerson's *Nature*. In *Nature*, Emerson argues, "Nature is always consistent, though she feigns to contravene her own laws. She keeps her laws, and seems to transcend them."

This demonstrates that the basis of his thought is the harmony among God, nature, and human beings. In his essay, *Emerson*, Toukoku meticulously examines Emerson's idea of nature. He argues for the view of nature, not as disregarded one as in Christianity, but as a medium between the universe and a human being. Toukoku also claims that Emerson unites the core aspects of Eastern and Western thoughts.

This paper aims to concentrate on such aspects of Toukoku's idea and to depart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oukoku's and Emerson's view of nature.

The difficulty in Toukoku's and Emerson's concepts of nature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ir ideas are not tied to a certain religion or sect.

Emerson's anti-Christian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ideas carried over to Toukoku, whose concept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Over-Soul and a human being led to the theory of *Inner-Life* through the inspiration.

Emerson's idea can be summarized as the unity of Over-Soul and human soul, which Toukoku accepted and developed into his theory of Inner-Life.

· 許 培 寬

住所 : 608-023 부산시 남구 대연3동 245-1번지 대우그린APT. 103-1707

電話 : 051)627-1358 018-278-6547(H.P)

E-mail : bghur@hyomin.donggeui.ac.kr